

使動과 受動의 相關性에 基盤을 둔 現代中國語 結果補語構造와 可能補語構造의 統辭的 變形 關係 研究*

金 玗 廷**

차 례

1. 머리말
2. 사동과 수동의 상관성
3. 결과보어구조/가능보어구조와 사동/수동의 관계
4.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기능 분담 양상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사동성과 수동성의 의미적 발전 관계를 근거로 하여 현대중국어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통사적 변형 관계를 해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는 구조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가능보어구조에 표지 '得/不'가 출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두 보어구조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두 보어구조가 통사 구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들 사이에는 의미적으로도 큰 상관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

* 본 논문은 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2007년 5월 19일, 서울, 「결과보어 구조와 가능보어 구조의 속성 비교 분석」)와 세계중국어학회 학술대회(IACL16, 2008년 5월 30일~6월 2일, 北京, 「基于使動和被動之間的相關性闡釋結果補語結構和可能補語結構的句法變換關係」)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으로서, 여러 연구자 분들의 의견 및 필자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가한 것이다.

** 韓國外國語大學校講師 hudie@hanmail.net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 사이의 이러한 통사적 변형 관계를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개별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방면으로는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그에 반해 이 두 보어구조의 속성을 비교 분석, 특히 두 보어구조 간의 통사적 변형 관계를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가 통사적으로 긴밀한 변형 관계를 맺는 현상에 대해 사동과 수동의 의미적 상관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사동과 수동은 이 두 보어구조와 관련하여 이미 제기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동과 수동의 상관성을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통사적 긴밀성과 연계시키는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사동과 수동의 상관성은 이미 공인된 시각이다(박정운 1994 등). 따라서 사동과 수동의 상관성, 결과보어구조의 사동성, 가능보어구조의 수동성 등 일련의 속성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면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통사적 변형 관계를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사동과 수동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사동과 수동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이 두 개념이 상호 변천 관계를 맺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에 내재된 사동 및 수동 의미를 분석한다. 이 논의는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통사적 변형 관계를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으로서 특히 이 두 보어구조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의미 자질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다. 셋째,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변형 관계가 기능적으로는 어떤 분담 양상을 보이는지 통사적 근거를 통해 비교 분석한다. 여기서는 두 보어구 대해 상(體; aspect)과 상황유형(情景類型; situation type)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2. 사동과 수동의 상관성

태(語態; voice)란 동작에 관여하는 참여자(參與者; participant)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서(이상억 1999, Saeed 2000[1997]), 언어 표현에 구현되는 양상으로 태를 이해한다면 “주어를 중심으로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의 방향을 지시하는 문법 범주”(김성주 2003: 1)라고 말할 수 있다. 태의 하위 유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능동(主動; active)과 수동(被動; passive)의 양분적 체계로 이해되고 있다.¹⁾ 그러나 최근 들어 사동(使動; causative)과 중동(中間態; middle)이 능동/수동과 맺는 상관성이 대두되면서 사동과 중동 역시 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태는 언어 표현에서 고유한 문법 형식을 통해 구현되는데 경우에 따라 바로 이로 이것이 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태의 본질은 인간이 실제 세계에 대해 인식하는 개념인데 반해 이것이 구현되는 방식은 가시적인 언어 구조이기 때문이다. 객관 세계는 그저 하나의 객관 세계일 뿐인데 인간은 이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해석(诠释; construal)하고 또 자신들이 해석한 내용을 언어로 구현한다. 따라서 상이한 언어 표현들이 실제로는 모종의 동일한 개념에 기반을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능동과 수동이 서로 대립적이라는 사실은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능동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쉽게 식별되는 반면 수동은 실제로 모든 언어에서 능동만큼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아래의 [표 1]을 통해서도 관찰된다.²⁾

[표 1] 현대 인도유럽어의 태 병합 양상

그리스어	라틴어	스칸디나비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능동	능동	능동	능동	능동
중간 (수동)	병합된 수동	수동과 병합된 재귀	재귀	능동 혹은 유사자동
			수동	수동

1) 그러나 Nida(1957)에서는 태의 하위 유형으로 10종을 제시하였다.

2) 아래의 <표 1>은 이상억(1999: 146)에 제시된 것을 국어로 번역하여 인용한 것이다.

만약 태에 대한 논의에 전형성을 부여해서 상례적인 논의와 보다 포괄적인 논의로 구분한다면 전자에는 능동과 수동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능동과 수동 외에 사동과 중동까지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사동과 중동은 언제나 능동과 수동의 하위 등급으로 취급받곤 한다. 특히 사동의 경우, 사동문에서 행위자 주어에 취하고 있는 까닭에 능동의 한 하위 부류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태의 논의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동과 수동의 상관성이 이들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태의 논의에서 차지하는 사동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사동과 수동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 상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중국어의 가능보어구조와 결과보어구조의 변형 관계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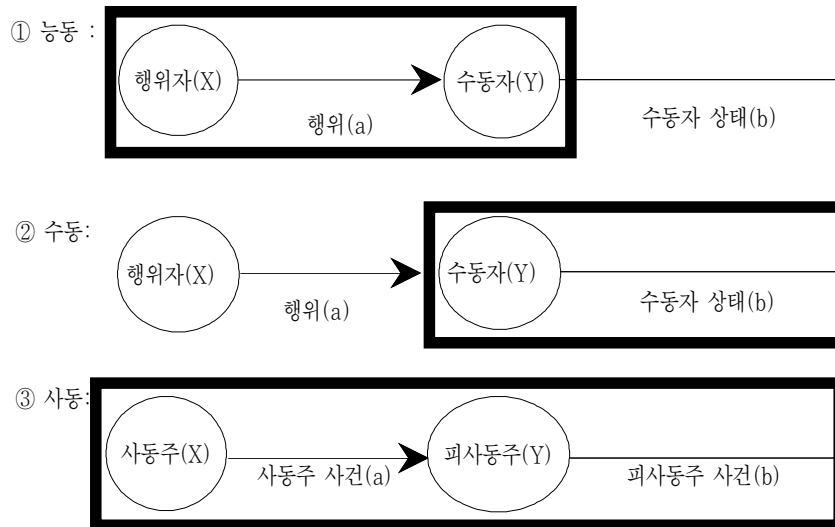
언어 표현은 객관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지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산물이다. 따라서 객관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한 사건을 두고도 화자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은 다양한 언어 표현으로 기술된다. 이것은 결국 객관 세계 그 자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영원히 정의내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객관 세계에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끊임없이 사건이 발생하거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객관 세계를 원인-결과의 사건 구조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결과의 사건 구조에서 어느 부분을 전경화(前景化; foregrounding)하는가에 따라 언어 표현도 그에 맞게 결정된다. 개체 X가 개체 Y에게 a라는 동작을 가하여 개체 Y가 b라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사건을 예로 들어, 화자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과 능동, 수동, 사동 등 가장 일반적인 태의 표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표 2] 능동, 수동, 사동의 의미 구조

전경화 대상	사건에 대한 해석 방식	언어 표현
X	X가 Y에게 행위 a를 가한다.	능동
Y	Y가 X의 행위 a로 인해 상태 b에 놓인다.	수동
X, Y	X가 Y에게 행위 b를 가하여 Y가 상태 b에 놓인다.	사동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능동, 수동, 사동이라는 서로 다른 언어 표현이 실제로 동일한 사건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도식 1]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³⁾ 도식에서 굵은 선 안의 부분이 화자가 전경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언어 표현에 구현되는 핵심 정보이다.

[도식 1] 능동, 수동, 사동의 인지 구조



현대중국어의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처럼 통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그것을 야기하는 개념적 상관성을 제기하는데 더욱 적합하다.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와 관련하여 사동성과 수동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⁴⁾을 고려한다면 사동과 수동 간의 상관성은 이 두 보어구조의 통사적 긴밀성을 더욱 적

3) 아래의 [도식 1]은 김윤정(2008a: 66)에 제시된 도식을 기반으로 하여 능동 도식을 추가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4) 결과보어구조 및 가능보어구조와 관련한 사동성 및 수동성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절하게 설명해줄 것으로 믿는다. 관건은 사동과 수동의 어느 요인이 이 두 보어구조의 변형 관계를 야기하는가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 핵심 요인으로서 수동자 중심성(受事指向性: patient-orientation)을 제기하고자 한다.

사동은 의미 구조상 능동이나 수동과 일정 정보를 공유한다. 앞의 [도식 1]을 살펴보면, 사동과 능동은 '행위자 X가 수동자 Y에게 동작 a를 수행한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사동은 수동자 Y의 상태 b까지 전경화한다는 점이 능동과 다르다. 또한 사동과 수동은 '수동자 Y가 행위자 X의 동작 a로 인해 상태 b에 놓인다'는 정보를 공유한다. 대신 사동은 행위자 X와 동작 a까지 전경화하는 점에서 수동과 다르다. 사동과 수동이 이와 같이 피행위자(recipient)⁵⁾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까닭에 사동구문에 '간접적 피동' 속성을 부여하기도 한다(이상익 1999: 137). 김윤정(2008a)에서는 사동과 수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수동자 중심성을 결과보어구조의 속성을 규명하는데 적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동자 중심성이 비단 결과보어구조 뿐 아니라 가능보어구조의 한 속성인 사실⁶⁾을 논의하여 이로써 두 보어구조의 변형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3. 결과보어구조/가능보어구조와 사동/수동의 관계

3.1. 결과보어구조와 사동/수동의 관계

결과보어구조를 사동 구조(使成式: causative form)로 간주하는 견해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王力 1996[1980], 孙锡信 1992 등). 결과보어구조의 사동성은 결과보어를 단순한 연합 술어 구조와 구분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의 결과보어구조가 맨 처음 출현한 시기를 대체로 春秋戰國시대와 漢代 사이로 보고 있다.⁷⁾ 이 시기에 두 개의 술어가 연이어 사용되는 구조가 출현

5) 피행위자는 원래 Bybee(1985)에서 사용한 술어인데 수동자, 경험자(經歷者: experiencer), 피사동주 등을 통합하여 지칭할 수 있다.

6) 가능보어구조의 수동자 중심성은 김윤정(2006)에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이 구조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1) a. **开通**道路, 毋有障塞。(『礼记·月令』)
 <길을 **내어** 장애물이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
 b. 若火之燎于原, 不可向迩, 其犹可**扑灭**。(『尚书·盘庚上』)
 <불씨가 들판을 태우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불을 끌** 수 있겠는가?>
 (孙锡信 1992: 318)

예(1a)와 (1b)의 '开通'과 '扑灭'는 모두 두 개의 술어로 이루어진 복합 술어 구조이지만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 예(1a)의 '开通'은 '开而使通'의 의미로서 사동 의미를 나타내는데 반해 예(1b)의 '扑灭'에는 사동 의미가 없다. 따라서 예(1a)는 결과보어구조로 간주되고 예(1b)는 동등한 두 개의 타동사로 이루어진 연합 구조로 간주된다. 결과보어구조의 원류로 간주되는 형식은 대체로 '타동사+자동사' 혹은 '타동사+형용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예(1b)의 '扑灭'는 '타동사+타동사' 구조로서 동일한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술어 간의 지위가 동등하다. 이와 같이 선행 술어와 후행 술어 간에 원인-결과 혹은 방식-결과 등의 논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결과보어구조가 아닌 연합 동사 구조로 간주한다(王力 1996[1980]: 402, 孙锡信 1992: 318-319).⁸⁾

그러나 결과보어구조를 사동 구조로 정의한다면 결과보어구조가 '被'자와 빈번히 결합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보어구조는 '被'구문의 술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이에 대해 김윤정(2008a)에서는 결과보어구조를 사동구조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수동자 중심성을 지닌 성분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7) 王力(1996[1980]: 402)에서는 한대에 출현했다고 주장하나 孫錫信(1992: 318)에서는 그보다 이른 춘추전국 시기로 여기고 있다.

8) 胡竹安·楊耐思·蔣紹愚(1992: 240-241)에 따르면 조사 '得'가 동태적인 것과 상태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뉜다. 조사 '得'가 정도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태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형은 가능보어구조의 조사를 가리키고 동태적인 유형은 정도보어구조의 조사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가능보어구조의 정태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결과보어구조가 '把'나 '被'를 통해 사동문이나 수동문으로 확장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결과보어구조가 사동 구조로 간주되기는 하나 그 자체만으로 사동구문을 이루지는 않는다. 결과보어가 사동구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지 '把'와의 공기(共現: co-occurrence)를 통해야 한다. '把'구문은 원래의 사동구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把'구문의 사동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鄧守信 1991, 郭姝慧 2005, 邵敬敏·趙春利 2005, 王蕾 2008, 叶向阳 2004, 张京鱼 2004, 张豫峰·郑薇 2006, 张豫峰 2007, 周红 2006a, 周红 2006b, 邹洪民 2001 등).⁹⁾ 또한 '被'구문은 이미 현대중국어의 전형적인 수동구문의 지위를 획득한 상태이다. 따라서 결과보어구조가 '被'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은 결과보어구조에 모종의 수동 인자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동과 수동 사이에 수동자 중심성이라는 공통된 속성이 존재하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결과보어구조가 사동문과 수동문에 공통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사실은 결과보어구조의 수동자 중심성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보어구조처럼 사동과 수동이 동일한 형태로 구현되는 예는 다른 언어에도 존재한다. 박정운(1994)에서는 여러 언어에서 사동과 수동 의미가 동일한 구조로 표현되는 현상을 제기하였다.

- (2) a.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사동)
 b.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수동)
- (3) a. I had my daughter kissed by the pope. (사동)
 b. I had my bike stolen (by a thief). (수동¹⁰⁾)

(박정운 1994: 186, 188)

9) '把'구문의 사동성에 대한 논의는 김윤정(2008b)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박정운(1994: 188-189)에서는 수동 구조를 'Passive'와 'Affective'로 재분류하고, (3b)와 같이 사동 구조와 동일한 음운을 사용하는 형식에 대해 일반적인 수동 형식과 구분하기 위해 Passive 대신 Affec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Affective란 수동자가 행위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나타내는 형식으로서 크게 보면 수동의 한 하위 유형이기 때문에 이 형식에 대해 수동성을 부각시킨다 해도 실제 내용에 큰 오류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ffective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예(2)와 (3)은 국어와 영어에서 사동 의미와 수동 의미가 동일한 성분을 통해 표시 되는 현상이다. 박정운(1994: 189)에서는 이러한 다의성에 대해 '사동 > 수동'의 문법화(語法化: grammaticalization)로 설명하면서 사동의 '객관적인 사건 기술'이 수동의 '화자의 주관적 판단 표시'로 이동해갔다고 해석하였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4) a. 인호가 미나에게 책을 읽혔_[하-었]다. (사동)
 b. 인호가 학생주임에게 머리를 깎였_[어-었]다. (수동)
 (박정운 1994: 189)

예(4a)에서는 '인호'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미나'로 하여금 책을 읽도록 만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한데 반해, 예(4b)에서는 주어인 '인호'가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은 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주어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문법소가 사동과 수동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¹¹⁾은 이 두 의미 간에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상관성은 사동의 객관성이 보다 주관적인 수동 의미로 문법화된 사실로 설명함으로써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나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두 형식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결과보여구조처럼 어휘 단위가 아니라 특정 구문을 이루는 표지의 경우에도 사동과 수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현상이 현대중국어에 존재한다. 현대중국어의 '让', '叫', '给'는 사동구문과 수동구문 모두를 구성할 수 있다. 아래에서 '让'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 (5) ……为不使该项技术让公众知悉, 仅限少数有关人员掌握, 并采取了适当的保密措施。
 <…… 해당 기술이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수의 담당자들에 한하여 (해당 기술을) 알고 있도록 하고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까지 취하였다.>
 (CCL语料库)

11) 예를 들어 국어에서 어미 '-이-', '-히-', '-리-', '-기-'는 사동과 수동 모두에 사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5)의 밑줄 친 ‘让’은 일반적으로 사동 표지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는 사동과 수동 어느 의미를 나타내는지 판별하기가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과보어구조에 사동과 수동 표시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근거로서 결과보어구조의 속성을 사동 혹은 수동 어느 한 쪽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이 두 속성을 통합할 수 있는 수동자 중심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2. 가능보어구조의 수동성

결과보어구조에서 후행 술어가 수동자를 진술하는 것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가능보어구조의 후행술어 역시 수동자를 진술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 (6) a. 这件衣服我已经洗干净了. <이 옷은 제가 이미 깨끗이 빨았습니다.>
 b. 这件衣服我洗得干净. <이 옷은 제가 깨끗이 빨 수 있습니다.>

예(6a)와 (6b)에서 밑줄 친 ‘干净’과 ‘得干净’은 모두 수동자 ‘这件衣服’에 대해 진술한다. 김윤정(2006)에서는 가능보어구조에 수동자 중심성을 제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능보어구조에 수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가능보어구조는 ‘선행술어+得/不+후행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표현 초점은 ‘得+후행술어’에 있으므로 ‘得+후행술어’가 가능보어구조의 핵심 술어 성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得+후행술어’는 피행위자의 상태를 진술한다. 따라서 가능보어구조의 술어는 피행위자의 상태를 진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술어가 피행위자의 상태를 진술하는 의미 구조가 문장에 반영될 경우 문장의 주어는 대체로 피행위자로 이루어진다.

④ 피행위자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개체가 아니므로 행위 수행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놓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곧 수동성의 본질과도 상통한다.

⑤ 가능보어구조가 나타내는 수동자 중심성(혹은 수동성)은 종종 동일시되곤 하는 ‘能/不能’구문과의 구별에 유용하게 작용된다. 즉 행위자의 능력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能/不能’구문과 달리 가능보어구조는 피행위자가 부득이하게 어떤 상황에 처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로써 일종의 능동/수동의 대립이 성립한다.

⑥ 가능보어구조의 수동성은 가능보어구조의 부정형의 출현빈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어떤 상황이 실현되지 않는 사건을 나타낼 때 ‘能’구문의 부정형보다는 가능보어구조의 부정형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能’의 부정형 ‘不能’은 불허, 금지 등의 양상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것은 곧 미실현의 상황을 나타낼 때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不能’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능보어구조를 사용하여 부득이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 예의적이고 체면의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으로 일종의 예의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로써 가능보어구조에도 수동자 중심성(혹은 수동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그렇다면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공통 속성인 수동자 중심성(혹은 수동성)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보어구조의 분화를 야기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보어구조가 사동/수동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과 달리 가능보어구조는 수동 의미로 발전한 구조이다. 결과보어구조에서 가능보어구조로 변형될 때 표지 ‘得/不’를 제외한 구체적인 의미 표시 성분들은 온전하게 보전된다. 구체적인 의미 표시 성분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 두 형식이 동일한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두 구조의 후행술어는 모두 수동자를 지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과보어구조에서 후행술어가 수동자를 지향하는 것은 사동 의미를 생성하는 기제로 작용하는데 반해 가능보어구조에서 후행술어가 수동자를 지향하는 것은 표지 ‘得/不’의 도움에 힘입어 문장 전체의 수동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사동/수동을 나타내는 결과보어구조에서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가능보어구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동과 수동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수동자 중심성이라는 공통 속성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변천 역사상 결과보어구

조가 가능보어구조보다 먼저 출현한 사실 또한 '사동>수동'의 발전 방향을 방증해준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결과보어구조는 사동과 수동 어느 쪽으로든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동의 능동성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가능보어구조는 표지로 인해 이미 수동자의 상태 진술로 정착하였다.

4.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기능 분담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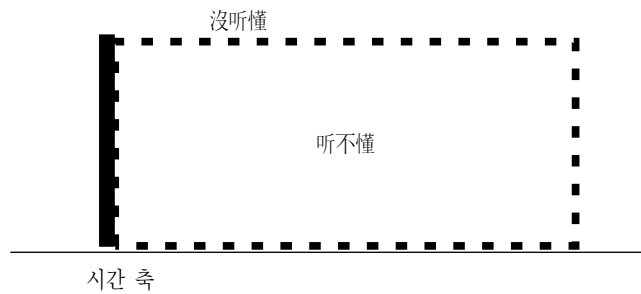
이상으로 사동과 수동 간의 의미적 상관성에 기반을 두고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통사적 변형 관계를 해석해보았다. 그 결과, 결과보어구조는 사동과 수동 모두를, 가능보어구조는 수동을 나타내는 형식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이러한 의미 구조가 실제로 통사 구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상(相)의 분담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는 두 개의 술어로 이루어진 복합 술어 구조이다. 두 구조 모두 선행술어의 실현 이후 후행술어가 나타내는 또 다른 상황의 출현을 나타낸다. 발화의 초점이 두 구조 모두 후행술어에 있다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결과보어구조는 명칭에서 이미 '결과' 표시 기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결과보어구조의 완료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능보어구조는 후행술어가 나타내는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됨을 나타낸다. 결과보어구조인 '沒听懂'과 가능보어구조인 '听不懂'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听不懂'은 '沒听懂'의 상황이 발생한 이후 이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沒听懂'은 못 알아듣게 된 상황이 출현했음을 나타내고 '听不懂'은 그 이후 못 알아듣는 상태가 지속됨을 말하는 것이다.¹²⁾ 이 두 구조의 이러한 상적 속성을 아래의 [도식 2]로 나타낼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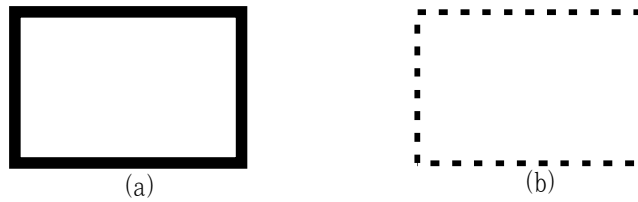
12) 김윤정(2005)에서는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이러한 상적 속성을 각각 '종결된 사건(結

[도식 2]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상 속성



이것은 마치 다각형의 속성을 논하는 것과 상통한다.

[도식 3] 다각형의 속성



[도식 3]의 (a)와 (b)는 사각형을 인식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사각형의 네 변을 인식하는 것이고 (b)는 사각의 면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각형은 네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a)와 같은 네 개의 변인가, 아니면 (b)와 같이 네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면인가?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모두 사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네 개의 변이 맞게 되면 그로 인한 면이 생기는데 이 면이 곧 사각형이다. 따라서 변과 면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어 변이 없으면 면도 없고, 반대로 면을 형성하지 않는 변은 존재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상황의 발생 포인트 또한

東的事件)과 ‘아직 끝나지 않은 가능(尙未結束的“可能”)’으로 비교하였는데, 전자는 사건 실현에 대한 완료성을, 후자는 사건 실현 이후 상태 지속이라는 미완료성을 강조한 것이다.

13) 아래의 [도식 2]는 김윤정(2006: 139)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반드시 존재한다. 모든 상황은 발생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는 바로 이러한 사각형의 변과 면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 앞에서 예로 든 ‘没听懂’과 ‘听不懂’의 경우 (마치 변과 면 모두 사각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모두 ‘알아듣지 못한’ 사실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변과 면의 속성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 사이에는 알아듣지 못한 사실의 출현 여부로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음을 나타낼 것인가의 차이가 존재한다.

4.2. 동태와 정태의 분담

사동 의미는 사동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는데(박정운 1994: 189),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와 관련한 어떤 상황을 야기하는 의미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동구문에서 주어는 원형적으로 행위자의 지위를 갖는다(박정운 1994: 192). 앞의 논의에 따르면, 결과보어구조는 사동이나 수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수동자 중심성을 지니고 있고 가능보어구조는 수동자 중심성의 기반 위에 표지 ‘得/不’의 첨가를 통해 수동구조로 정착했다. 때문에 결과보어구조는 사동성에 의한 동작성이 드러나고 가능보어구조는 수동성에 의한 비동작성이 드러나는 상황유형(情景類型: situation type)의 대립이 이루어진다. 결과보어구조의 동작성과 가능보어구조의 비동작성을 증명할만한 통사적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몇몇 현상들이 있다.

①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는 ‘把/被’와의 공기 여부에 대립을 이룬다.

가능보어구조가 ‘把’나 ‘被’자와 공기하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衫村博文, 沙野 译 1982, 田化冰 2001, 刘月华 等 2004 등). ‘把’구문의 술어를 구성하는 성분은 결과보어구조(7a), 방향보어구조(7b), 정도보어구조(7c), 수량보어구조(7d), 장소보어구조(7e), 동사+동태조사(7f), 동사 중첩(7g), 연동형(7h) 등 매우 다양하지만 가능보어구조(7i)만은 ‘把’구문에 출현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를 비교해 보자.

- (7) a. 你今年一定要把毕业论文写完。
 <너는 올해 반드시 졸업 논문을 마쳐야 한다.>
- b. 我把书拿起来, 放到书架上。
 <나는 책을 집어 책꽂이로 가져다 놓았다.>
- c. 他把斧子举得跟头一样高。
 <그는 도끼를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 d. 妹妹把我的衣襟拉了一遍。
 <여동생이 내 옷자락을 한 번 잡아당겼다.>
- e. 他把药放在桌子上了。
 <그는 약을 테이블에 놓아 두었다.>
- f. 把杯子里的酒喝了。
 <잔에 든 술을 마셨다.>
- g. 现在我把我的意见说说, 大家看看是否可行。
 <이제 제가 제 의견을 좀 얘기할 테니 여러분이 괜찮은지 좀 봐 주십시오.>
- h. 她把小明送给她的戒指拿起来看了一下就放在一边了。
 <그녀는 小明이 그녀에게 선물한 반지를 집어 한 번 보고는 한 편에 놓아두었다.>
- i. *我把这件行李拿不动。

(刘月华 2004[2001]: 735-739)

衫村博文(沙野 译 1982: 422)에서는 '把'와 가능보어구조가 공기하지 않는 이유로 가능보어구조가 형용사와 유사한 비완결의 상태성(非完結性狀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가능보어가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把'와 결합할 수 없다는 趙永新(1992: 124)의 언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把'자와 결합하지 않는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가능보어구조가 '被'와 공기하지 않는 것 역시 가능보어구조에 동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被'를 전치사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被'구문은 구조상 다른 전치사 구문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즉 행위자와 그 뒤에 출현하는 동사구가 자연스

럽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 ‘被’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8) [他][被][大家选作小组长]。

예(8)은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나 동작을 수동자가 당한다(被)’는 ‘被’구문의 의미 구조를 반영한다. 예(8)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被’구문에서는 동사가 수동자를 지향하기 보다는 행위자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¹⁴⁾ 이것은 곧 ‘被’구문의 동사 자체가 진술하는 대상은 사실상 주어가 아니라 행위자라는 뜻이다. ‘被’구문에서 수동자에 대해 진술하는 성분은 동사 자체가 아니라 ‘被’를 포함한 이하의 모든 성분이기 때문에 ‘被’ 없이는 술어가 수동자를 지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른 전치사들은 결코 이와 같은 구조로 분석될 수 없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¹⁵⁾

- (9) a. * [他][在][里边休息]。
 b. * [我们][从][这儿出发]。
 c. * [你][把][那两本书送到他的办公室吧]。
 d. * [我][用][铅笔写字]。
 e. * [我][给][他打电话]。
 f. * [他][跟][朋友聊天]。

‘被’구문에서 ‘被’의 도움으로 술어가 수동자에 대해 진술할수 있는 특징은 가능보어구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가능보어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선·후행 두

14) ‘被’구문에서는 ‘被’ 뒤의 행위자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被’구문에 사용된 동사(구)는 여전히 행위자의 구체적인 동작 수행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수동문에서는 주어가 수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수동자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니므로 행위자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행위를 수행한 개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15) 예(9e)와 (9f)는 전치사 뒤의 ‘他打电话’, ‘朋友聊天’이 ‘被’구문의 ‘被’ 뒤 성분과 마찬가지로 ‘주어+술어’ 구조를 이루는 듯하다. 그러나 ‘被’구문과 달리 예(9e)와 (9f)의 ‘他’와 ‘朋友’는 실제로 ‘打电话’와 ‘聊天’의 행위자가 아니다.

술어 자체만으로는 가능보어구조의 수동자를 지향 기능을 확정하기 어렵다. '得/不+후행술어'가 수동자에 대해 진술하는 사실 및 '得/不+후행술어'가 가능보어구조의 핵심 표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능보어구조 전체가 수동자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동자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표지를 지니는 점에서 가능보어구조와 '被'구문은 공통적이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일만한 사실은 '被'자와 결합하는 동사구가 동작성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被'구문의 의미 구조상 동사구 자체가 행위자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의 예(8)에서도 분석한 바 있듯이 '被'구문의 술어는 행위자의 행위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被'와 공기하는 술어에는 동작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가능보어구조가 '被'와 공기하지 않는 현상은 곧 가능보어구조에 동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②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는 부사어와의 공기 여부에 대립을 이룬다.

부사어는 동사(구)나 형용사 앞에 출현하여 시간, 장소, 방법, 범위, 성질,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분으로서 부사, 형용사, 시간사, 장소사 등과 같은 낱개의 단어에서 전치사구, '地'자 첨가형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술어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부사어의 기본 기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사어와 술어 간의 결합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성분수식 부사¹⁶⁾의 경우, 술어의 동작성 유무를 기준으로 술어와의 결합 관계에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부사어와 술어 간의 다양한 결합 예들을 살펴보자.

- (10) a. 张老师非常热情 / *非常学习中文.
 <张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시다 / *매우 중국어를 공부하신다.>
 b. 他们刚去电影院 / *刚漂亮.
 <그들은 방금 영화관에 갔다 / *방금 예쁘다.>
 c. 她晚上请我们吃饭 / *晚上漂亮.
 <그녀는 저녁에 우리를 식사에 초대했다 / *저녁에 예쁘다.>

16) '성분수식 부사'란 문장에서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정도, 범위, 상태, 시간, 빈도 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분수식 부사는 문장 밖에서 명제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심리 태도를 표명하는 '문장수식 부사(sentence-modifying adverb)'와 상대적인 용어이다(김종호 1995: 485-486).

- d. 他们都学习中文/都热情.
 〈그들 모두 중국어를 배운다/ 모두 친절하다.〉
- e. 他们不喝酒/不高兴.
 〈그들은 술을 안 마신다/ 기분이 좋지 않다.〉
- f. 你应该多穿衣服/多努力/?多漂亮.
 〈당신은 옷을 더 입어야/ 더 노력해야/ ?더 예뻐야 합니다.〉
- g. 你快走/快漂亮吧.
 〈너 어서 가거라/ *어서 예뻐라.〉
- h. 她在医院工作/在医院热情.
 〈그녀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병원에서 친절합니다.〉
- i. 我们很快地翻译完了这篇文章/很快地热情.
 〈우리는 아주 빨리 이 글을 다 번역했다/ *아주 빨리 친절하다.〉

(김윤정 2006: 125)

예(10)을 살펴보면,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형용사(구)나 동사(구) 어느 술어든 자유롭게 결합하는데 반해 그 외의 부사어는 대체적으로 어느 한 성분의 술어와만 결합한다. 즉 정도부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는 형용사(구)와만 결합하고 시간, 전치사구, '地'자 첨가형 부사어는 동사(구)와만 결합한다. 다만 부사어가 형용사로 이루어진 경우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예(10f)처럼 '多'가 사용된 경우는 동사(구) 뿐 아니라 형용사(구)와도 결합하기는 하나 형용사(구) 중에서도 결합하는 양상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예(10g)처럼 '快'가 사용된 경우는 오직 동사(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것은 부사어로 사용된 형용사의 개별적인 의미가 문맥에 작용하는 역할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비록 완전한 체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예(10f), (10g)와 같이 형용사가 부사어로 사용된 예를 제외한다면 부사어와 술어의 결합 양상을 아래의 [표 3]과 같이 개괄해낼 수 있다.¹⁷⁾

17) 아래의 [표 3]은 김윤정(2006: 126)에 제시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표 3] 부사어와 술어 간의 결합 양상

	부사어의 유형						
	단일형					복합형	
	정도	부정	시간	범위	형용사	전치사구	-地
동사구	-	+	+	+	+?	+	+
형용사구	+	+	-	+	-?	-	-

동사구와 형용사구의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 동작성의 유무이다. 동사구는 대체로 동작성을 띤 사건을 나타내고 형용사구는 동작성이 배제된 상태를 나타낸다. 동작성의 유무와 [표 3]의 개괄 내용을 근거로 하면 부사어와 술어 간의 결합 가능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시간 표시, 전치사구, '地' 첨가형 부사어는 동작성 성분과 결합한다. 둘째, 정도 표시 부사어는 비동작성 성분과 결합한다. 부사어의 이러한 결합 특징에 근거하면 가능보어구조의 비동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邵敬敏(1998: 116)에서는 가능보어구조가 '已然'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보어 중 하나임을 지적하였다. '已经'은 사건의 완료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이다. 따라서 아래의 예(11)과 같이 가능보어가 '已经'과 결합하지 않는 것은 곧 가능보어의 비동작성을 말해준다.

(11) a. *已经睡得着/不着 < *이미 잠들었다/잠 못 들었다.>

또한 가능보어구조가 '~地' 부사어와 공기하지 않는 현상 또한 가능보어구조의 비동작성을 나타내준다. [표 3]에서 형용사가 부사어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 동사구 술어를 수식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2) *他很努力地学得会/不会. < 그는 아주 열심히 마스터할 수 있/없다.>

따라서 가능보어구조가 '~地' 부사어와 공기하지 못하는 현상은 가능보어구조가 동사구에 보이는 동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가능보어구

조를 문장의 술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가능보어구조를 ‘~地’ 부사어와 결합시키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田化冰(2001: 29)에서도 학생들이 가능보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 중 하나로서 아래의 예(13)와 같이 가능보어구조와 ‘~地’ 부사어의 결합을 예로 지적한 바 있다.

- (13) *她讲得很慢、很清楚, 我很容易地听得懂。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쉽게 알아듣는다.>
 (田化冰 2001: 29)

이상의 여러 가지 근거 외에 가능보어구조의 비동작성을 더욱 명확히 설명해줄 수 있는 통사 현상이 존재한다. 가능보어구조는 ‘最’, ‘不大’, ‘真有些’ 등과 같이 정도 표시 부사와 공기할 수 있다. 정도 표시 부사는 형용사처럼 비동작성 상태를 나타내는 성분만 수식하기 때문에 가능보어구조가 이들과 결합하는 사실은 곧 가능보어구조의 비동작성을 반증해준다. 衫村博文(沙野 译 1982: 422)에서도 아래의 예(14)를 통해 가능보어구조가 의미적으로나 기능면에서 이미 형용사에 근접해있다고 설명했다.

- (14) a. 最坐不住的是老三。<가장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은老三이다.>
 b. 这些根据都不大站得住。<이 근거들 모두 그다지 성립하지 못한다.>
 c. 现在还真有些说不明白。<현재 아직도 정말 어떤 것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衫村博文, 沙野 译 1982: 422)

③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는 동태조사 ‘了’와의 공기 여부에 대립을 이룬다. 동태조사 ‘了’는 완료를 나타내는 범주이다. 상은 동작과 관련한 범주이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상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위해서는 해당 성분이 반드시 동작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동태조사 ‘了’와의 공기 여부는 동작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가능보어구조가 동태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현상은 주지의 사실이다(朱德熙 1997: 132, 田化冰 2001: 30, 房玉清 2003: 153 등).¹⁸⁾ 이것은 ‘已然’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가능보어구조가 공기하지 못한다는 선행 논의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그에 반해 결과보어구조는 동태조사 ‘了’와 자유롭게 공기한다. 결과보어구조는 이미 2음절 동사로 어휘화되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만큼 일반적인 동사와 많은 문법 기능을 공유한다. 아래의 예(15)는 가능보어구조와 결과보어구조가 동태조사 ‘了’와 공기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 (15) a. *那时候我还小, 爬不上去了那个梯子。
 〈그 때는 내가 아직 어려서 그 계단을 오르지 못했다.〉
 b. 今天的作业已经做完了。
 〈오늘 과제는 이미 끝냈다.〉

④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는 부정법에 차이를 보인다.

결과보어구조의 부정형에 ‘沒(有)’가 출현하고¹⁹⁾ 가능보어구조의 부정형에는 ‘不’가 출현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두 구조의 동작성 유무가 드러난다.

- (16) a. 这件衣服没洗干净。〈이 옷은 깨끗이 빨지 않았다.〉
 b. 这件衣服洗不干净。〈이 옷은 깨끗이 빨리지 않는다.〉

중국어에서 부정 형식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부정어는 ‘不’와 ‘沒(有)’인데 이 중 ‘沒(有)’는 완료된 사건을, ‘不’는 미완료 혹은 모양이나 상태를 부정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결과보어구조에는 동작성이, 가능보어구조에는 비동작성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18) 간혹 가능보어구조 뒤에 ‘了’가 출현하여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田化冰 2001: 31) 이 때의 가능보어구조는 형용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 가정의 상황에서 부정할 경우 결과보어구조에도 ‘不’가 출현하는데, 이것은 결과보어구조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가정 의미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제외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사동과 수동의 의미적 상관성 및 이것을 바탕으로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통사적 변형 관계를 해석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동과 수동은 객관 세계에 대한 화자의 상이한 해석 방식이다. 사동은 화자가 행위자, 행위, 피행위자, 피행위자의 상태 등 사건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전경화한 개념으로서 이러한 '사동주→사동주 사건→피사동주→피사동주 사건'의 의미 구조가 언어 표현에 구현된 것이 사동구문이다. 수동은 화자가 수동자를 전경화함으로써 언어 표현에 수동자를 주어로 출현시켜 주어가 처한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동과 수동 사이에는 수동자와 수동자의 상태, 즉 수동자 중심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사동과 수동이 모종의 의미를 공유하는 까닭에 '사동에서 수동으로'의 의미 변천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의 변형 관계는 이 두 보어구조에 내재된 사동과 수동 의미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결과보어구조를 사동 구조로 인식한다. 그러나 결과보어구조는 사동문과 수동문 모두로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사동과 수동 자질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보어구조는 사동과 수동의 공통 자질인 수동자 중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능보어구조는 그 핵심 표현 성분인 '得/不+후행술어'가 수동자를 진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과보어구조와 마찬가지로 수동자 중심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가능보어구조의 경우는 표지 '得/不'의 작용으로 수동 의미로 정착했기 때문에 수동문에 준하는 기능을 갖는다. 결국 결과보어구조의 사동/수동 의미와 가능보어구조의 수동 의미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자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의미적 상관성이 두 보어구조의 통사적 긴밀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결과보어구조와 가능보어구조는 각각 어떤 결과의 출현 여부와 그 결과의 지속이라는 상적 분담을 이룬다. 또한 결과보어구조의 수동자 중심성과 가능보어구조의 수동성은 동태와 정태의 대립을 이룬다. 두 보어구조의 이러한 상황유형의 대립은 '把/被'와의 공기 여부, 부사어와의 공기 여부, 동태조사 '了'와의 공기 여부 및 부정법에서 대립을 이루는 등 통사적으로도 동태/정태의 분담 양상이 입증된다.

참고문헌

- 김성주, 『한국어의 사동』,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김운정, 「“能”、结果补语、可能补语: 三个表示“可能”的结构所表达的三种“体”」, 『对韩(朝)汉语教学研究』 Vol.1, 延边, 延边大学出版社, 2005
- _____, 「가능보어의 수동자 중심 양상 의미에 대한 인지적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현대중국어 수동자 중심성 형태범주 연구」, 『중국어연구』 43, 2008a
- _____, 「현대중국어 사동구문 비교 분석 연구」, 『중어중문학』 42, 2008b
- 김중호, 「현대 중국어 문장수식부사의 서법성고」, 『중어중문학』 17, 1995
- 박정운, 『Morphological Causatives in Korean: Problems in Grammatical Polysemy and Constructional Relations』, 서울, 태학사, 1994
- 이상익, 『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서울, 집문당, 1999
- 邓守信, 「汉语使成式的语义」, 『国外语言学』 3, 1991
- 房玉清, 『实用汉语语法(修订本)』,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3[2001]
- 郭姝慧, 「现代汉语致使句式研究」, 『语言文字应用』 3, 2005
- 胡竹安·杨耐思·蒋绍愚, 『近代汉语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1992
- 刘月华 等, 『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 北京, 商务印书馆, 2004[2001]
- 衫村博文, 沙野(译), 「V得C、能VC、能V得C」, 『汉语学习』 6, 1982
- 邵敬敏·赵春利, 「“致使把字句”和“省隐被字句”及其语用解释」, 『汉语学习』 4, 2005
- 孙锡信, 『汉语历史语法要略』,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1992
- 田化冰, 「关于可能补语的教学」, 『安顺师专学报』 4, 2001
- 王蕾, 「致使义视角下的“把”字句及其英语表达形式」, 『外语教学与研究』 1, 2008
- 王力, 『汉语历史稿』, 北京, 中华书局, 1996[1980]
- 叶向阳, 「“把”字句的致使性解释」, 『世界汉语教学』 2, 2004
- 赵永新, 『汉语语法概要』, 北京, 北京语言文化出版社, 1997[1992]
- 朱德熙, 『现代汉语语法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1997[1980]
- 张京鱼, 「心理动词与英语典型使役化结构」, 『四川外语月远学报』 5, 2004

- 张豫峰·郑薇, 试析动宾式离合词构成的致使语态句, 『汉语学习』 6, 2006
- 张豫峰, 「关于现代汉语致使态的思考」, 『汉语学习』 6, 2007
- 周红, 论“把”字句的正向致使性与句式特征, 『云梦学刊』 1, 2006a
- _____, 「“使”字句与“把”字句致使表达异同分析」, 『吉林省教育学院学报』 2, 2006b
- 邹洪民, 「致使义“把”字句的语义语用分析」, 『语言与翻译』 1, 2001
- Bybee, Joan L.,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 Nida, Eugene A.,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Saeed, John I., *Semantics*, Oxford, Basil Blackwell, 2000(1997)
- 『CCL语料库』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Connection between
Complement of Result and Potential-Marking Complement of Modern Chinese
based on the Relevance between Causativity and Passivity

Yoonjeo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tructural connection between Complement of Result (CR) and Potential-Marking Complement (PMC) in Modern Chinese based on the semantic relevance between causativity and passivit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only difference was the addition of the mark *de* between PMC and CR. Also, this paper will suggest that the semantic relevance

between causativity and passivity is a clue to understanding the close structural connection between these two structures.

In particular, this paper includes a cross-linguistic analysis of the semantic relevance between causativity and passivity, resulting in the phenomenon that these two categories are expressed as the same form. It has already been suggested that there is causativity in CR and that there is passivity in PMC, so it is the hope of this paper that the result that causativity and passivity are related both semantically and syntactically will clarify the structural connection between CR and PMC.

This paper is formed by the following discussions: (1) to examine the common semantic feature between causativity and passivity; (2) to analyze the causativity of CR and the passivity of PMC; (3) to examine the functional division made by the relevance between CR and PMC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wo complement constructions.

Key words : complement of result, potential-marking complement, causativity, passivity, semantic relevance

투 고 일 : 2008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8월 15일
